

시리즈 7 참가자용

가정공동체 말씀
Family Community

신앙여정

박선규 목사 저

Faith Journey

Geneva Press

2021

가정공동체 말씀 [참가자용]

초판인쇄·2020년 5월 4일

초판발행·2020년 5월 18일

편집인·박선규

글쓴이·박선규

발행처·제네바 프레스(Geneva Press)

주문처·박선규 목사(Rev. sunkyoo Park) 502-569-5484

양윤경 간사(Yun Yang) 502-569-5478

email · spark@presbypub.com

y.kyoungyang@presbypub.com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복사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정보 보관이나 검색 기능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주소나 온라인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Geneva Pres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

www.genevapress.com





머리말

우리 신앙 생활은 목적이 있고 종착지가 있는 하나의 여행과도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 책을 들고 있는 당신도 아마 신앙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당신의 신앙 여행은 어떠한가? 즐거운가? 힘들고 지쳐서 빨리 마치고 싶은가? 당신이 신앙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purpose)은 무엇인가? 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신앙 여행의 목표(goal)는 무엇인가?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목표지점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여행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여정이 멀고 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준비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신앙 여행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정에서 맞이하는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 교재는 이러한 신앙 여정을 잘 마친 성경 인물들 중 한 사람인 다윗 왕에 관한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으며,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늘 기준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 다윗을 제외하면 신앙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도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에 부딪혀 넘어졌다. 하지만 그는 다른 왕들과 달리 다시 일어나 그의 신앙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신앙 여행을 시작하여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여행을 마치게 된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당신이 신앙 여행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떠올려 보라. 그리고 이 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마감하고 싶은지 생각하며 기도해 보라. 이 교재는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인 신앙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여졌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차 례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박선규 목사(총회출판국)

1월 부르심.....	6
2월 기본기.....	11
3월 섬 김	16
4월 두려움 극복	21
5월 고난극복.....	26
6월 네트워크 형성	31
7월 기도와 찬양	36
8월 존 중	41
9월 낙심 극복	46
10월 인 내	51
11월 넘어짐.....	56
12월 한 가지 소원.....	61



부르심

성경 본문	사무엘상 16 : 1~13
요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7절).
찬송	324장(통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과의 목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숙고한 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당신이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다윗을 표준으로 삼으실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전체 12과로 되어있는 이 교재는 그 비결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도전과 실천 사항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다윗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이웃 나라들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해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자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기 왕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물색해 놓았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1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의 눈은 그 당시 왕도가 있던 기브온이나 큰 도시들을 향하지 않았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학벌 좋은 자들을 향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눈은 작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소년 다윗 위에 머물렀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다.

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선지자 사무엘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순전히 엘리



압의 외모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비단 다윗의 경우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정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내면의 겸손을 보셨다(삼상 9:21 참조). 그 때에도 사무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울의 외모를 보았지만 말이다(삼상 10:23-24 참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외모’에는 단지 신체적인 조건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 학벌, 가문, 지위, 연령, 인종과 같은 외적 조건들이 모두 포함된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물론, 다윗은 수금도 잘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소년이었다(삼상 16:18 참조).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그러한 외적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중심 때문이라고 가르쳐준다.

엘리압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선지자 사무엘 앞을 이새의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한 명씩 지나간다. 사무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의 외모가 보이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이 그들의 외모에 머물지 않는다. 사무엘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기초한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삼상 16:1 참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없었다.

사무엘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새에게 이 일곱 외에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묻는다.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한다. 아버지 이새가 왜 막내 아들을 그 중요한 가족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새 또한 다윗의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들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나 외적인 조건들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



심을 보였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다(삼상 13:14 참조).

3.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위에 크게 임한다.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은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대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마 3:16, 4:1, 12:28, 눅 5:17 참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성령을 의지하셨다.

예수님을 이어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이처럼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도 그들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III. 생각을 삶으로

1.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